

군에서의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적용 가능성 연구

■ 김동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M.A.)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그동안 우리는 장병들을 상담해 오면서 주로 ‘이 병사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병사가 무엇을 잘해 오고 있고, 잘하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더 부각시키고 강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조심스레 강점 발견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을 새로운 군 상담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 경험, 예외상황)을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에 중점을 두는, 단기간 내에 상담 목적을 성취하는 모델이 되겠다. 이 모델은 문제보다는 내담자가 상담을 통

해 얻기 원하는 바에 초점을 둔다. 즉 문제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바라는, 또는 기대하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할 때 내담자는 문제에 깊이 빠져들지 않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고 첫회부터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변화를 꿈꾸며, 변화를 위한 작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예전에 재미 청년이 미국 시사지에 아름다운 청년으로 선정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청년에 의하면 하루 25분의 선행이 환경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사회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종이컵을 쓰지 않는다, 일회용 칫솔이나 세면도구를 모아 두었다가 노숙자를 위한 시설에 보낸다 등, 일상에서 자질구레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다 살 만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바꾸는 데 원동력이 됨을 몸소 실천하고, 그것도 몇 해 동안 실행해 오고 있었다. 이 청년의 신념은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실행에 옮길 때, 그것도 꾸준히 하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떤 일이라는 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벌어지고, 어떤 변화 또한 획기적인 것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작은 변화가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잔잔한 호수의 수면에 떨어진 가랑잎 하나가 일으킨 파장이 수면 전체의 떨림으로 서서히 번져가는 것처럼 말이다. 학창 시절 우리는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뭔가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출발과 어떤 막연한 변화를 기대하는 심정이 되곤 하며, 새로운 출발에 앞서 우리 모두는 또한 내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면서 더 나은 변화를 꿈꾸게 된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계획들은 작심 삼일에 발목이 잡혀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일상을 답습하는 자신일 뿐임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변화를 위해 너무 지나치게 거창한 계획을 세워 실행도 하기 전에 질리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잡아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닌 내 안에 없는 것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원을 활용하여 돌변한 모습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상담 및 심리 분야에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는 모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합적 형태의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으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며, 어떻게 상담자가 내담자와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호작용 속에서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모든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현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은 내담자의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가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굳이 상담이나 심리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내담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변화를 꿈꾸고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

변화를 바라는 우리에게 이 해결 중심 단기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정은 귀 기울여 볼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이 모형은 변화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측면 및 문제 해결 측면,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출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 중심의 대화보다는 해결 중심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엔 늘 문제를 가질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일어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

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의 원인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소모하는 시간만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문제를 의식함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다. 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발명을 낳듯이 말이다. 해결 중심 단기 모형이 전제하는 또 하나의 가정으로 작은 변화는 큰 변화로 이끈다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작은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내담자나 일상의 개인에게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새 학기가 되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시도하고자 했을 것이다.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등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지속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어떠한가? 계획한 대로 변화를 꿈꾸는 방향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과연 만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때로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에게 더 너그러운 게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게으르다든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지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해보겠다고 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무엇인가를 할 그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실행되어질 때 그야말로 언젠가는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군에 새로운 상담의 패러다임으로 강점 발전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을 하루속히 전파 및 적용시킴으로써,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우리 장병들에게 적절히 제공함은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개종 및 성장을 이끄는 도구로서 이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잘 활용되기를 바랄 뿐이다.

2. 해결 중심 상담

1) 해결 중심 상담의 중심 철학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은 1978년 밀워키의 단기 가족 치료 센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드셰이저(de Shazer)와 김인수 부부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모델은 에릭슨(M. H. Erickson)의 영향을 받아,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적응을 교정하려고 하거나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필요 없다고 본다. 즉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경험, 강점과 자원 그리고 능력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기보다는 잘된 것과 그 활용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problem)가 아닌 해결(solution)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갖는다.¹

무엇보다도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내담자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내담자가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알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스스로 발견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해결 중심 단기 모델의 상담자 역할은 열쇠를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내담자가 잠긴 문을 스스로 열고, 이미 알고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서, 내담자가 목표를 알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성공감을 갖도록 하며, 그 성공감이 내담자의 능력이 되도록 강점과 자원을 활용한다. 이때, 상담자는 문제 해결 방안을 구축하

기 위해 면담 이전의 변화를 묻는 질문, 예외 질문, 기적 질문, 척도 질문, 대처 질문, 관계성 질문 등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내담자의 성공적 경험을 부각시킨다.²

해결 중심 접근은 이처럼 긍정적인 면을 강조함으로써 저항을 낮추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약물 남용 노숙자, 우울증, 성인 정신과 환자, 산모와 어린 자녀,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등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적용되어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 사회 부적응, 청소년기 문제, 보호 관찰, 교정 시설, 학대 아동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유용성을 확인할 만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³

이러한 연구들의 관점은 만성 정신질환을 가진 내담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이것은 내담자가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병리적인 것에서 강점으로의 실천 전환은 상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망이 없는 사례’들도 내담자 자신이 정한 목표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삶에서 커다란 향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내담자들이 새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그들의 재능과 자원,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⁴

이처럼 내담자들로 하여금 좀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담자가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마음속으로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원들을 수집하는 방법

¹ P. DeJong & I. K.Berg, 《해결을 위한 상담》, 허남순, 노혜련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4), 38-39.

² 최규련,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를 적용한 부부 상담 사례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권(1994), 17-39.

³ 김인수 외,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해결 중심 치료의 적용》(서울: 동인, 1998), 66-69.

⁴ Insoo Kim Berg, Scott D. Miller, 《해결 중심적 단기 가족 치료》,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5), 29-38.

에서 발전된 것이다. 강점에 기반한 사례 관리가 정신 보건 영역에서 더욱 적용, 발전되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열망에 초점을 두고,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내담자가 구축하는 것을 돕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때 상담자의 역할은 단지 내담자들이 목표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이며, 내담자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함께 발견하는 것이다.⁵

해결 중심 모델은 처음으로 치료에서 ‘단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밀튼 에릭슨의 영향을 받았다. 1970년대 드셰이저(Steve de Shazer)와 인수 김 버그(Insoo Kim Berg)는 심리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에 단기적으로만 머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치료 초기 해결에 바로 초점을 두고 해결로 이동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해결이란 내담자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의 예외들, 즉 성공의 경험들을 다시 생활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해결 중심 모델 역시 강점 발견에서와 같이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버그와 드종(Berg & De Jong, 2002)은 내담자의 강점에 기초하여 작업해 나가는 것이 해결책 구축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은 모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천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이 두 접근은 모두 ‘내담자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며, 목표와 해결책이 실천의 중심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 상담

자들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평가하였으나,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모두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담자가 알고 있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지식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과정의 시작이다.

둘째,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모두 문제 너머에 있는 내담자가 원하는 삶의 자세한 모습을 탐색하기 위해 그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점은 강점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 모두 문제가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강점 발견과 해결 중심 모델은 사람들의 실패와 결함보다는 그들의 능력과 열망에 초점을 둬으로써,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병리적 관점에 도전하고 변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해결 중심 모델은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고, 그들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긍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상담 기술을 개발하였다.⁶

해결 중심의 상담 기술은 상담하는 동안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에 대한 넓고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유용함에 대한 확신 속에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확대 활용하는 것을 돕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들이 참여를 장려하면 할수록 서비스도 개별화되고, 내담자의 존엄성도 극대화시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즉, 해결 중심 모델

⁵ 이영분, “청소년 자녀 문제 치료를 위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의 적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권(1995): 180-181.

⁶ John S. Walter & Jane F. Peller, 《단기 가족 치료-해결 중심으로 되어가기》,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서울: 하나의학사, 1996), 130-137.

⁷ P. DeJong & I. K. Berg, *op. cit.*, 27-29.

은 현장에서 강점 발견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담자들에게 보다 선명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

2) 해결 중심 상담의 기본 원칙

(1) 내담자의 강점 활용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접근에서는 내담자에게 비록 병리를 증명할 만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접근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한다. 셀리비(Saleebey)의 역량 강화에 관한 견해와 이것에 기초한 가정은 전통적 문제 해결 접근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상담자가 내담자와 함께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⁸

인간은 개인적으로 갖는 흥미와 강점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성장한다. 사람들은 보통 잘하지 못하는 것은 피하고 대신에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그것을 즐기며 의미를 둔다. 그러므로 상담자 중심으로 내담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사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내담자 개인과 그 가족의 강점에 대한 탐색에 기초하여 내담자와 함께 결정한 계획을 수립할 때 내담자 체계의 변화를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⁹ 그러므로 오한런과 윌크(O' Hanlon & Wilk, 1987: 132)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경험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내담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 기술, 믿음, 동기, 행동, 증상, 사회 관계망, 환경과 개인적인 특성¹⁰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¹

(2) 내담자의 소망에 초점

해결 중심 상담은 상담자로 하여금 내담자가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가정도 하지 않도록 하고 내담자가 느끼는 개별적이고 자신만의 독특한 어려움에 주목함으로써, 내담자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상담자는 사례 상담에서 내담자와 문제를 논의하고 상담자의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내담자가 수용하도록 납득시키는 데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내담자의 견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의 원함을 잘 경청하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준거들을 수용하고 그 준거들 내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준거들을 배우거나 그것에 적응하도록 기대되었을 뿐, 상담자가 내담자의 준거들을 수용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접근은 실천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오히려 내담자가 상담자의 준거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원조 상담자들은 그들을 어렵고 저항

⁸ Ibid.

⁹ Ibid.

¹⁰ 상담자는 내담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생활 스타일, 그리고 그들 가정의 문화 등이 상담자의 삶의 경험과 매우 달라도 내담자 경험이 해결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¹¹ 김인수 외,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해결 중심 치료의 적용》 (서울 : 동인, 1998), 27-31

¹² P. DeJong & I. K. Berg, *op. cit.*, 27-29.

적이며 부정적인 내담자라고 여겼다. 그러나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형성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 자신이나 가족 특성에 따른 강점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이것은 각 내담자 특성에 맞추는 맞춤형의 접근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개개 내담자를 위한 것이 아닌 전통적인 접근의 제한점을 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3) 상담자는 내담자의 협력자

내담자의 협력자로 활동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상담자 중심의 접근을 사용하지 않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목하며,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적으로 내담자로부터 배워야 한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가 사용하는 표현과 언어를 통해 그들의 관점과 그들 자신을 이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협력하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그들의 삶의 상담자이자 그들의 삶에 대해 상담자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말하기 위해 선택하는 표현 방법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려주고 보여준다는 것은 내담자들이 상담자들에게 이미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조금씩 보여주는 길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의 협력은 필연

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사이먼(Barbara Levy Simon, 1994)은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개념 안에 “내담자와 가족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즉,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담자는 그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력에 있어 에너지의 흐름이 쌍방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내담자와 협력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내담자를 돕는 상담자들은 내담자에 대한 온정주의에 빠진다가나, 내담자를 희생자로 만들거나, 내담자 관점을 선매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력은 내담자가 상담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고 사례 관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담자 자신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 가도록 도모한다.¹⁴

(4) 내담자는 지속적인 배움과 변화의 존재

일반적으로 상담 분야에서는 내담자들이 상담자에 의존적이고 자발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존재라 생각하는 편견이 있어 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가족이라는 체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가족 체계, 항상성, 불변성, 문제 보유 경향성 등과 관련하여 먼저 내담자 가족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런 상태를 어떻게 다른 상태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사례를 이해하고 개입하였다.

이렇듯 내담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 가정하는

¹³ Ibid.

¹⁴ 이인정, 최해경,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서울: 나남, 1995), 41-43.

것과 내담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상담자로 하여금 현재 내담자의 사정이 최악의 상태이며 지금 당장 상담자의 계획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더 나아지는 변화들과 더 악화되는 변화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도 반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인간 발달 이론에서도 이제는 내담자를 변화가 가능하며 잠재적인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간주한다. 드 세이저(1985) 역시 변화는 내담자의 삶의 일부여서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내담자를 돕는다는 것은 내담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를 단지 확인하고 그 변화를 해결책으로 활용하는 작업이다. 월터와 펠러(Walter & Peller, 1992)는 내담자의 삶에서 변화가 항상 일어난다고 본다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 상태로 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지금 내담자와 그 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데 의미 있고 가능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훨씬 쉬운 방법이며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¹⁵

비록 내담자가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언급하며 불평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개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루어져야 하며, 그 시작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든 해결점이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내담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삶의 원하는 방향을 향해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져 괜찮을 때”가 있는지와, 그 때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때를 어떻게 지속하고 확장

¹⁵ P. DeJong & I. K. Berg, *op. cit.*, 24-28.

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따라서 변화가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은 문제 상황에서도 항상 예외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즉시 상담자가 문제 상황에서도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내담자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어 내담자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노력을 확인해 보는 과정으로 그를 초대하도록 만든다.¹⁶

(5) 현재 및 미래 지향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강조된다. 내담자에게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가보다 그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에 우선적인 관심을 둔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였던 원인에 대해 묻고 이해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고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더 깊은 관심을 둔다고 해서 내담자의 과거에 대해 전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의 현재와 미래 삶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므로 내담자를 과거의 삶으로부터 분리할 수는 없다. 상담자가 과거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도 그와 관련한 내담자들이 현재 살아가는 방법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한 내담자의 과거 정보에 대해 내담자들로부터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와 문제로부터 가급적 멀리하게 하고, 현재와 미래에 무게 중심을 두어 해결책으로 지향하도록 도와야 한다.

¹⁶ *Ibid.*

3) 해결 중심 상담 사례 기본 규칙

상담자가 내담자를 최선을 다해 돕는다 하더라도, 그 관점이 내담자 중심이 아니라 상담자 중심일 때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잘 따라주는 경우에만 사례 진행이 수월하게 될 것이다. 만일 내담자가 상담자의 관점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담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상담자가 먼저 지치고 낙망하기 쉽다.¹⁷ 그리고 그 사례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매우 어려운 사례이며 내담자가 전혀 변화하려 않는다고 간주하고, 더 이상 사례가 진행될 수 없는 많은 이유와 근거가 내담자에게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곤 한다.¹⁸

그러나 강점 발견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 중심에서 내담자와 파트너가 되어 내담자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함께 지향하는 실천을 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문제 중심의 실천 과정과는 매우 다르지만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 중심 상담 기술들이 하나의 기술로만 적용된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준거틀로 내담자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규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규칙들은 상담자의 초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규칙들은 경직된 의미에서의 규칙들이라기보다는 사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안내 지침과도 같은 것이며, 상담자가 항상 염두에 둘 만한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¹⁷ J. Walter & J. Peller, *op. cit.*, 34-37.

¹⁸ 이정은, “만성 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105-17.

(1) 내담자가 문제 삼지 않는다면, 상담자가 먼저 고치려 하지 마라

내담자가 생활 중에 있는 일들에서 아직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 해결의 필요 여부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가 가진 특유한 문화나 생활스타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러한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럴 때 내담자와 공동으로 무엇을 해야 효과적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라 여기지 않는 것에 상담자가 개입하려 한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것을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와 문제를 논의하고 상담자가 가진 특정한 이론적 입장을 내담자가 수용하도록 납득시키는 데 긴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다행히 내담자가 상담자의 견해를 수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담자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기 쉽다. 따라서 내담자가 상담자와 해결책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기보다는 상담자의 견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담자의 준거틀을 그대로 수용하며, 내담자가 스스로 관리하고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규칙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발견하라는 것이다.¹⁹

¹⁹ P. DeJong & I. K. Berg, *op. cit.*, 112-116.

(2) 효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을 더 많이 시도하라

두 번째 규칙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효과가 있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훈련되어 왔다.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그것을 잘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더 잘 관찰하고 찾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강점 발견을 기반으로 한 해결 중심 상담자는 내담자가 유능하고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예외적으로 행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긍정적 행동은 가족의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²⁰

이런 예외적인 긍정적 행동이 일어날 때,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주의 깊게 잘 관찰하여 성공의 유형들을 규명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예외적인 긍정적 행동들은 내담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과거 혹은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행동이기에 내담자로 하여금 그런 예외 행동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이러한 성공적인 기간을 조금씩 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내담자는 자신이 행했던 예외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그가 행해 보지 못한 어려운 행동을 새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예외적 성공이 상세히 밝혀진다면 사례의 목표는 매우 쉽게 규명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자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규칙은 효과가 없는 것은 중단하고 내담자의 삶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다.

²⁰ Ibid.

(3)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반복하지 말고, 다른 것을 시도하라

역시 세 번째 규칙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해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논리적인 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 대신 ‘만약 네가 첫 번째에 성공 못한다면 계속해서 시도하라’라는 격언에 매달리게 된다. 그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왔고, 그러한 모습을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담자가 계속 효과가 없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그는 효과가 없는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됨으로 인해 다른 대안을 더욱 볼 수 없게 되며, 내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그가 원하는 결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을 스스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효과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비록 그것이 다소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어떤 것이든 다른 것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4) 해결 중심 상담의 자세(Not-knowing posture)

상담자로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주고자 한다면 상담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준거틀을 버리고 내담자의 준거틀을 탐색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는 서서히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이는 한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내담자의 경험과 행동

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상담자가 (자신의 전문가적 증거들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아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인지와 설명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²¹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는 상담자의 행동이 풍부하고 진실된 호기심을 전달하는 태도를 말한다. 상담자는 행동과 태도는 내담자 자신과 문제 또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한 견해 또는 기대보다는, 내담자가 한 말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항상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상태가 되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내담자를 ‘알고 싶어 하는’ 자세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로는 경청, 상담자의 비언어적 행동,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반복, 개방형 질문 및 요약, 쉽고 간략한 설명, 침묵의 사용,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주목, 자기 생각의 표현, 과정에 대한 주목, 칭찬,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확인, 공감, 초점을 내담자에게 되돌리는 것, 해결 중심 대화의 확대 등이 있다.²²

해결 중심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증거들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거들(frame of reference)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지각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범주들의 집합이다.²³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주변에서 그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관리하거나 그것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들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의 플래시와

같이 상담자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의 전 과정은 내담자의 증거들에 기초하여 해결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해결 중심적 단기 상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인 상담과정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담자를 처음 만나게 될 때는 이름 교환과 일상적인 이야기 및 상담과정에 대한 명료화, 그다음으로는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질문과 내담자의 언어에 대한 존중, 제시된 ‘문제’가 내담자에게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파악, 내담자는 어떠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는지, 내담자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끝으로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작업하기 및 메시지 작성과 전달로 1회기 상담을 마칠 수 있다.²⁴

5) 해결 중심 상담 질문 기법

해결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체계는 상호 신뢰와 협동을 기초로 하는 치료적 단위로 간주한다. 치료 체계의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하며 해결 방안을 구축해 간다. 상담자의 질문을 통하여 내담자는 상담자가 치료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 것에 관하여 알게 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질문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 질문을 통하여 내담자가 자신의 힘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며 기법이라고 본다.²⁵

²¹ 김인수, 송성자, 정문자, 이영분, 김유숙, 《무엇이 좋아졌는가》(서울: 동인, 1998).

²² *Ibid.*

²³ 정민희, “해결 중심 단기 상담 모델을 적용한 알코올 중독 환자 집단 사례 연구,” 33-38.

²⁴ 이정은, “만성 질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해결 중심 집단 효과성 연구,” 53-57.

²⁵ 송성자, 김정택,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의 관점과 치료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권(1994): 131-150.

(1) 처음 상담 이전의 변화에 관한 질문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이 상담실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가 문제의 심각 정도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담 약속을 하고 오기까지 많은 생각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약속한 후 지금까지 발생한 변화에 대하여 질문하고 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접근을 한다. 상담자는 어떻게 문제의 심각 정도가 완화되었는지를 내담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시한 방법에 관하여 인정하고 칭찬을 해준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한 것과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²⁶

예: 지난번에 상담 후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2) 예외 질문: 성공했던 경험과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질문

예외 질문은 우연적인 성공을 의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으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에 관하여 주로 부정적이며 문제에 몰두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질문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거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연하게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성공하였던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키는 전략 또는 기법이다.²⁷

²⁶ Ibid.

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때는 언제입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과 발생하지 않는 상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 기적 질문: 현실 변화의 구축과 가능성에 대한 자기상을 형성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고, 해결하기 원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하며, 치료 목표를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질문 기법이다. 기적 질문 접근 과정에서 자기 문제를 재인식하고, 해결된 상태를 상상하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인 것을 인식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기적 질문은 문제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해결을 분리하여 해결 상태를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²⁸

예: 밤에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상상합시다. 아침에 김 이병이 박 상병의 어떠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면 지난밤에 기적이 일어나 박 상병이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른 부대원들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4) 척도 질문: 수치로 정도 표현

내담자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 정서적 관계, 자아존중감,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변화를

²⁷ Ibid.

²⁸ J. Walter & J. Peller, *op. cit.*, 120-128.

위한 동기,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척도 질문은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탐색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문이다. 척도 질문은 문제의 심각 정도를 사정하고, 치료 목표 성취 정도를 측정하고, 사정 평가 및 결과 평가를 위해 유용하다.²⁹

① 문제 해결에 관한 전망에 관련된 척도 질문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10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를 말한다. 오늘은 몇 점에 해당하는가?

같은 척도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담자가 현재의 상태를 6점이라고 했다면, 6점에서 7점으로 변화할 때 무엇이 달라질 것 같은가?

친한 부대원이 여기 있다면,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얼마라고 말하겠는가?

② 동기에 관련된 척도 질문

같은 10점 척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할 수 있겠는가?

친한 부대원은 당신이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친한 부대원은 당신이 1점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겠는가?

③ 진전 상태를 평가하는 척도 질문

10을 상담 목표가 성취된 상태라고 하고, 1을 상담받으러 왔을 당시의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의 상태는 몇 점인가?

1점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1점이 올라간다면 누가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

(5) 대처 및 극복 질문: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것

문제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매우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장래 희망이 없는 것같이 생각한다. 대처 질문이 효과적인 것은 내담자에게 경험을 활용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³⁰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어내고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처해 온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 강화,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담자가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유용하다.³¹

예: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탱해 왔습니까?

계속 반항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참고 견디어 왔습니까?

당신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6) 관계성 질문

이 질문은 내담자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희망, 힘, 한계, 가능성 등을 지각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

²⁹ Ibid.

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때로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예측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다가 중요한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³²

예: ‘당신의 선임병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선임병에게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내담자가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한다.

(7) 간접적인 칭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담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질문이다. 간접적인 칭찬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강점이나 자원을 발견하도록 이끄는(자기 칭찬) 질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칭찬보다 더 바람직하다.

간접적인 칭찬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내담자가 이야기한 바람직한 결과에 대하여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 “어떻게 당신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② 관계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어떤 긍정적인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 만약 당신의 부대원들이 여기에 있어서 제가 그들에게 당신이 좋은 부대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 생각에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③ 내담자는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 당신의 부대원 개개인을 특별한 존재들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8) 2차와 그 이후 상담: 상담 효과의 유지, 강화, 확대

2차 회기에서는 지난번 치료 이후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변화에 관하여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질문은 어떠한 변화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하면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하기 위해 하루하루 그리고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여 추적해 나간다. 작은 변화라도 발견되면 변화를 강화, 유지, 확대를 위하여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³³

예: 지난주 동안 변화한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중요한 것이니까 말해 주세요.

³⁰ Ibid.

³¹ Ibid.

³² 정상원, “청소년 사회 기술 향상을 위한 집단 사회 사업-단일 체계 연구 방법을 활용한 실험 연구,” 129-131.

³³ 정동화,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45-49.

(9) 후퇴와 악화: 변화가 없거나 나빠졌다고 보고할 경우

내담자가 변화하고 성장하였던 것이 후퇴하거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는 실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퇴와 악화된 상태에서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다.³⁴

〈후퇴된 경우의 질문〉

예: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의 후퇴는 과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생활에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질까요?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그 정도에서 멈추게 했습니까?

〈악화된 경우의 질문〉

예: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 결론

그동안 우리는 군에서 상담을 시도할 때 주로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 문제점만 해결되면 상담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결 중심의 단기 상담 모델이 우리 군의 실정에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소개한 문제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 분석과 진단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의 문제 상황이나 행동들을 파헤치는 데 비해,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현재의 문제 패턴을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제 진단보다 내담자의 장점이나 예외 등을 탐색하여 내담자의 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중심 모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고 사는 것과 같이, 상담자들 또한 내담자의 과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내담자에게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주신 자원들과 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곧 상담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한 명의 군인의 문제는 공동체 전체, 곧 군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군 상담을 시도할 때 개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 단기 공동체 상담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 위해 내담자에게 자기 탐색 상담 과제(Pre-Session)를 제공하고 내담자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곧 사람은 태초부터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인정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거듭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핵심을 기반으로 그 이론적 배경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규정하기보다는 내담자가 가진 자원(강점, 성공 경험)이나 예외 상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내담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이론이다.

지금 우리 군은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가진 신세대 병사들이 계속 복무를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부대 안에 같이 생활하는 병사들끼리, 때로는 병사와 간부 사이에 서로 불편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어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치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심리적, 영적인 지원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³⁴ Ibid.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부여 받은 한국군 종목사단과 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전사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싸워 이기는 강군 육성 및 미래 교인으로까지 성장, 연결시킴으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및 부름에 기꺼이 응하고 있으며 전사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해결 중심 단기 상담이 우리 군에 앞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기독 장병 양육 연구¹ (2825부대 산돌교회를 중심으로)

■ 오희준

-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교육전공 졸업
 - 군선교교육원 6기 수료
 - 2825부대 산돌교회 목사



1.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 제기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그 규모에 있어서 많은 성장이 있었다. 1950년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2.4%인 약 50만 명이 기독교 신자였으나, 1965년 이후 매년 30%의 양적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에는 293%라는 폭발적인 증가¹를 통하여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 1993년 한국종교사회연

구소 통계를 살펴보면, ‘1950년에 3,114개였던 교회가 1960년에는 5,011개로 증가하였고, 1970년에는 12,866개로 증가하여 157%의 증가율을 보였고, 1980년에는 21,243개로 증가하여 65%의 증가율을, 그리고 1990년에는 35,819개로 증가하여 약 69%의 증가율을 보였다.³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교회 수의 증가는 교인 수의 증가로 이어졌고, 한국의 기독교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2005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⁴ 종교 현황에 있어서 기독교 신자⁵의 비율이 1985년에는 16.1%에서 1995년에는 19.7%로 3.6%가 증가하였으나, 10년 뒤인 2005년에는 18.3%로 1.4%가 감소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각 연령대별 증가율에 대해서 1999년, 2003년, 2005년에 통계청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자료인 연령별 종교의 유무⁶와 연령별 기독교인 비율⁷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연령별 종교의 유무

연령	1999년		2003년		2005년	
	유	무	유	무	유	무
15-19세	46.7%	53.3%	46.2%	53.8%	50.6%	49.4%
20-29세	43.1%	56.9%	44.7%	55.3%	49.1%	50.9%
30-39세	50.8%	49.2%	49.3%	50.7%	47.9%	52.1%
40-49세	60.6%	39.4%	58.2%	41.8%	31.3%	68.7%
50-59세	61.8%	38.2%	62.4%	37.6%	28.3%	71.7%

(출처: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

¹ 이 논문은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

² 정진홍, “한국 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사회 변동과 한국의 종교》(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257.

〈표2〉 연령별 기독교인 비율

연령	1999년	2003년	2005년
15-19세	48.8%	50.2%	38.14%
20-29세	44.83%	44.7%	36.36%
30-39세	36.74%	40.9%	36.87%
40-49세	31.46%	33.5%	31.32%
50-59세	26.8%	29%	28.33%

(출처: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

먼저 〈표1〉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999년보다 2005년에는 3.9%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 청년기에 ‘종교가 있다’라고 응답한 수는 1999년에 43.1%에서 2005년에는 49.1%로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세 이후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한 수가 증가한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표2〉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을 보면 〈표1〉에 비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표2〉를 분석해 보면 1999년-2005년에 청소년기의 종교인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15-19세의 청소년 기독교인은 48.8%에서 38.14%로 10.66%의 감소가 나타난다. 또한 20-29세의 청년기 역시 44.83%에서 36.36%로 8.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30대

³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I》(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15제인용.

⁴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⁵ 기독교(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모르몬교, 성공회,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 영주교 등 포함.

⁶ 통계청, 행정구역/성/연령별종교인구. 통계청 조사국 인구 총 조사과(1999, 2003, 2005).

⁷ Ibid.

이후는 전체 종교인은 감소하였으나 기독교인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1999년의 기독교인은 20대가 44.83%였으나 6년이 지나 30대가 되는 인구는 36.87%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인 수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인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한국 교회 역시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닮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청년 전도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체교인 중에서 청년의 비율은 적은 편이다. 2007년도에 행해진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는 청년기에 해당하는 18-29세의 비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믿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36.9%가 불교를, 35.4%는 천주교를, 그리고 27.7%만이 기독교를 믿겠다⁸라고 조사되었다.

윤성구의 논문에 따르면, “감리교의 J교회는 주일 성인예배의 출석 인원이 약 2,000명이나 청년부는 30-40명을 넘기지 못한다고 보았고, 장로교의 S교회의 경우 평균 5,000명이 출석을 하나 약 150명 정도가 청년”⁹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청년 전도가 어렵고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군 선교이다. 군 선교란 60만 국군 장병들에게 1,004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민간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사역¹⁰

을 말한다. 군대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곳이다. 대한민국 청년 남성이라면 종교에 관계없이 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전도 및 기존 청년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다.

현재 청년들의 군복무 기간을 보면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대에서 생활해야 하며,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 훈련과 주특기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약 18개월 동안 배치받은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들이 배치받은 부대의 군인 교회에는 군대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앙을 가지고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들은 군복무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인원들도 있으나, 반대로 의무적인 종교행사, 부모의 신앙에 의한 반 강제 등 다양한 이유로 군인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도 있다. 또한 군에 오기 전에는 교회에 출석했으나, 현재는 종교를 거부하고 있는 병사들도 볼 수 있다. 이 청년들이 군 생활 가운데 바른 신앙관으로 양육받게 된다면, 전역 후 민간 교회로 돌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군복무 기간 중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을 통하여 바른 신앙관을 확립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군복무를 마치고 민간교회로 가게 되었을 때, 청년부에서 잘 적응하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년 전도의 중요성과 신교대나 훈련소에서의 진중 세례 후 양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양육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장병들이 양육 프로

⁸ 홍명유, “청년기 인지 발달과 교리 교육”, 〈2011년 제51차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총신대학교 종합관 2층 세미나,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소 편 (서울:총신 대학교기독교교육연구소, 2011), 39

⁹ 윤성구, “교회 성장을 위한 청년부 활성화 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13-14.

¹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 선교 사역 매뉴얼”(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14.

그림을 통하여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청년들이 성장하며,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관련 저서, 연구 논문, 정기 간행물, 실제 대대급 군인교회에서의 출석 및 세례 통계표 등의 자료들을 분석, 정리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첫째, 현재 군대에서의 군 선교에 대한 결과 자료들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군 선교 매뉴얼>(2011)과 군선교연합회 정기총회 보고서(2010-2012)를 참고할 것이다.

둘째, 군인 교회에서의 장병 양육 방법에 있어서는 본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산돌교회에서의 양육 방법과 통계 자료를 통하여 대대급 군인 교회에 있어서 효과적인 장병 양육 모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를 기술한다.

2장에서는 대대급 군인 교회의 양육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2825부대 산돌교회의 기독 장병 양육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으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대대급 군인 교회의 양육 필요성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고 부대로 배치받은 장병들은 대부분 처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군인 교회이다. 이들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현실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다. 8주라는 기간 동안 육체적인 훈련을 경험하고 주일에 잠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출석한 장병들은 대부분 그 시간에 육체적 피곤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어도, 예배 후에 교회에 남아서 양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신교대나 훈련소의 교회는 주일에 훈련병 예배와 현역병 예배, 군인 가족 예배로 나뉘어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육을 희망하는 세례 인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양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신교대나 훈련소의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막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장병에게 집단적으로 간단하게 신앙 교육을 실시하고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최소 1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헌법적 규칙에서 5조 학습과 6조 성례를 보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세례 문답을 통하여 학습 교인이 되고, 다시 6개월 동안 신앙 교육을 받고 난 후 세례 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된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기초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세례를 받은 후에는 신자로서 교회에 적응하고 봉사하기까지의 단계를 거치고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1년 동안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민간 교회처럼 충분한 양육 후에 세례를 받는 선(先)양육 후(後)세례가 아니라, 선(先)세례 후(後)양육으로 인하여 대대급 교회에서는 양육 분야의 전반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세례를 받은 초신 장병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들은 부대 환경과 타 종교의 전도에 의해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

지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된다. 타 부대의 사례에 따르면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3개 종단을 돌면서 세례, 영세, 수계를 받고 부대에 배치되는 장병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이라 할지라도 양육받지 못한다면 자대 배치 후 18개월 동안의 힘든 군생활 동안 자신들이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은 신자라는 의식조차 잃어버린 채 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세례받기 전의 불신앙 상태로 전락하거나 타 종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군 입대 전 세례를 받은 장병들도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양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초신자들과 동일하게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군생활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군 입대 전에 교회에서 종교등부 회장과 청년회 회장을 했던 장병이 군에 입대한 후에는 신앙을 버리거나 예배에 참석하려는 장병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체계적 양육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운영 체계상의 문제이다. 자대에서 세례를 받은 인원뿐만 아니라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은 장병들도 자신이 세례 신자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자의 명단이 대대급 교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장병들이 작성하는 군인 신자 기록 카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대 배치 후 타 종교로 이탈하거나 무종교자로 행동하더라도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3>과 <표4>는 각각 군선교연합회가 조사한 연간 세례 실적 현황과 국방부의 전수 조사를 나타낸 것이다.

<표3> 2007-2011년의 군선교연합회의 연도별 수세 실적 현황¹¹

연도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인원(명)	184,320	182,903	171,274	174,550	153,225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표4> 2009-2011 국방부 종교 장병 전수 조사^{12 13}

	총계	종교 장병					무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장병
2009년	655,000 (100%)	180,488 (27.56%)	59,835 (9.14%)	86,755 (13.25%)	1,167 (0.18%)	782 (0.12%)	325,973 (49.77%)
2010년	653,000 (100%)	200,656 (30.73%)	66,023 (10.11%)	100,923 (15.46%)	1,736 (0.27%)	728 (0.11%)	282,934 (43.33%)
2011년	653,000 (100%)	171,245 (26.22%)	56,627 (8.67%)	84,925 (13.01%)	1,359 (0.21%)	126 (0.19%)	337,628 (51.7%)

(출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 40, 41차 정기총회 보고서)

<표3>과 <표4>를 비교해 보면, 수세 실적에 비하여 기독교를 선택한 종교장병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방부에서 조사한 2009년의 장병 전수 조사에는 21개월의 군생활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부터 훈련소나 신교대, 자대에서 세례받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표3>의 수세 실적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최소 30만 명이상이 전군에서 세례를 받은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표4>의 2009년 종교 장병 전수 조사에서는 기독교가 180,48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184,320명이 세례를 받았으나, 2011년 전수 조사에서는 171,245명으로 13,000명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보게 된다. 물론 종교 장병 전수 조사를 7-9월경 실시하기 때문에

¹¹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2), 63.

¹²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0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11), 65.

¹³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1차 정기총회 보고서 · 회의안. *op.cit.*, 128.

2011년 12월까지의 수세 실적은 반영되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다를 수 있으나, 그 결과가 실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또한 군에 입대하기 전의 기독교 청년들의 숫자까지 전수 조사에 포함하게 된다면, 신교대나 훈련소, 자대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전수 조사에서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선택하지 않은 장병의 수는 더욱 감소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무종교 장병의 수가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6.4%가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다시 8% 이상 증가한 것을 볼 때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만으로는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명이다. 이 양육을 통하여 군에서 세례받은 장병들은 군생활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듭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훈련받게 된다. 이 양육을 마치고 전역한 후에는 민간 교회에서 지속적인 양육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3. 2825부대 산돌교회의 기독 장병 양육 방법

2825부대는 육군의 155mm 견인포 대대이며 4개의 포대는 하나의 율타리 내에 주둔하고 있다. 산돌교회는 대대급 교회이기 때문에 군종목사가 아닌 군 선교사에 의해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 선교사를 돕는 군종병들은 이중 보직에 의해 평일에는 훈련에 임하고 자유시간이나 주말에 군종병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2012년 5월 현재, 교회에는 9명의 군종병과 5명의 신우회원이 병사들을 섬기고 있으며, 평균 150명이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하는 장병의 80%는 군에서 신앙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이다. 이 초신자들과 20%의 입대 전 신자들이 자대에서 군생활하

는 18개월 동안 교회에서 시행하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받은 후 전역하여 민간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군종병의 교사와 2825부대 산돌교회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 및 그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종병의 교사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교사로서 양육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간부가 거의 없다. 영내에 있는 간부들은 중위 이하의 장교나 중사 이하의 부사관들이고, 그 외 결혼한 간부들의 경우 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거나 군부대 교회보다는 민간 교회로의 출석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대급 이상의 군인 교회와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 선교사 혼자 모든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헌신되어 있는 군종병을 교사로 세워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세워진 군종병들의 교사로서 활용되는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교사로서의 사역이다

부대로 전입 와서 첫 주에 교회에 출석하는 새신자들은 4주간의 신병 훈련소와 4주간의 주특기 훈련소를 마친 장병들로 대부분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나온 병사들이다. 이들은 아직 부대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군종병들은 각 포대에서 새신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동질감을 활용하여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

군종병들은 각 포대의 양육 교사로서 4주 동안 새신자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타 종교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교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2)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자로서의 교사 사역이다

4개의 포대를 군 선교사 1명이 주 중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소그룹을 양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초신자들과 신우들이 주말에 모여서 양육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 민간 교회의 경우 구역장을 세워서 각 구역별로 성경공부를 진행하거나, 주일학교 교사에 의해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주 중에도 장병들이 신앙의 체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종병들이 양육의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군종병 역시 양육의 교사 이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병사들이다. 그러나 군종병 또한 주 중에는 모든 훈련과 경계 근무에 참여해야 하며, 주말에는 예배 준비와 새신자 양육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중적인 군종병 양육을 위해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 1박 2일의 일정으로 집체 교육을 실시한다. 군종병의 자대 근무 기간 역시 1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되는 군종병과 기존 군종병들의 재교육을 위하여 1년에 2번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 교육의 장소는 교회가 되며, 군종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신자 양육과 소그룹 진행을 위한 이론과 실습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데, 장병 양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종적으로는 교육받은 그들이 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2) 장병 양육 프로그램

산돌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과정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진다. 첫째는, 부대에 배치를 받고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이 새신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둘째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이다.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어지는 동아리 활동에 하나의 동아리로 등록하여 38주 동안 기초 과정, 성장 과정, 성경 개관 과정, 성숙 과정으로 4단계의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순환식으로 이루어져 중간에 참여해도 어려움이 없게 한다. 셋째는,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이다. 평일 자유 시간에 각 포대에서 군종 및 신우들의 인도로 소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1)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입대하여 2825부대 산돌교회에 처음 출석한 장병들은 총 436명이다. 이들의 세례 현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를 보면, 군입대 전에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은 14.4%인 63명에 불과하다. 신교대 및 훈련소에서 세례받은 인원과 자대에 배치되어 세례받은 인원은 322명으로 73.9%가 초신자이다. 민간 교회에서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지만 군대는 훈련 및 근무 환경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규정된 종교 활동 시간에서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시간에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종교 활동이 보장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다. 산돌교회의 예

〈표 5〉 2825부대 산돌교회 세례 현황(2010.1-2011.12)

	합계	입대전 세례자	신교대/훈련소 세례자	자대배치 세례자	미세례자
인원(명)	436	63	218	104	51
(%)	100	14.4	50	23.9	11.7

배시간은 오전 9시 30분-11시 30분으로, 점심식사 전까지의 30분 동안이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새신자에 대한 4주간의 양육이 군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거나 자대에서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 초신자들은 각 포대 군중병들에 의해 4주 동안 집중적인 양육과 관리를 받게 된다. 새신자는 어느 주차에 와도 순환식으로 4주 동안 양육을 받게 되며, 근무나 휴가로 인하여 양육을 받지 못하면 해당되는 주간에 각 포대에서 1:1로 저녁 자을 시간을 이용하여 군중병이 양육하여 믿음의 초석이 세워지도록 한다. 이 4주간의 양육 때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받은 병사는 세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세우며, 미세례자는 새가족 교육 후 결신에 따라 세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새신자 양육 교재의 활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주었다. 자체 제작하여 군중병을 통해 양육하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초신 장병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기초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연종 목사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집필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재를 통하여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2) 동아리 활동을 통한 양육 프로그램

새신자 양육 과정을 마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제자 양육

은 18개월 동안의 군생활에 있어서 세례받고 예배만 드리는 신자의 단계에서 신앙의 성숙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자 양육의 필요성은 개인의 신앙, 교회의 사역, 신학적 배경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첫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높여주고, 셋째 다른 교인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으며, 넷째 영적 성숙을 경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여섯째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 범주에서는, 첫째 목사 혼자서는 모든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둘째 교인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경우가 발생할 때 필요하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도록 도울 수 있고, 넷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신학적 배경에서는, 첫째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삶의 본질이며, 둘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이고, 셋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지속되게 하는 과정이며, 넷째 평신도를 사역화하며, 다섯째 참 교회의 구현이 개인의 성실한 제자화에 좌우되기 때문이다.¹⁴

현재 군부대도 일반사회에서 행해지는 주 5일제가 적용되어 특별 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이 실시되고, 토요일과 주일은 휴무일로 일과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 휴무는 훈련의 연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해야 한다. 2825부대의 경우 주 5일제로 인하여 토요일 오전에는 전 장병에 대하여 동아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¹⁴ 안병창, “교회 교육과 제자 훈련 프로그램 유형”, 〈2011년 춘계학술대회 제17회 논문발표회〉, 안양대학교 수봉관 8층 멀티룸, 한국복음주의 기독교교육학회 편 (서울: 한국복음주의기독교교육학회, 2011), 11.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의 친목과 개인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부대 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산돌교회에서는 과거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지는 시간에만 제자 양육을 해야 했던 제약의 어려움을, 동아리로 제자훈련반을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교육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38주 동안 기초 과정, 성장 과정, 성숙 과정, 심화 과정으로 4단계의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1시간 30분 동안 강의 및 토론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양육 교재는 일반 교회의 경우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보급되어 있으나 군인교회의 경우 특수성에 맞는 교재의 개발 및 보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들을 모아 군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재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군부대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고 있는 교재들을 통하여 양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연중 군종목사가 집필한 3단계의 양육 교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에 의해 새롭게 편집된 〈The 좋은 군사〉를 활용하여 산돌교회에서는 기초 과정 8주, 성장 과정 10주, 성숙 과정 10주, 심화 과정 10주로, 총 38주 동안 진행되어진다. 새신자 교육 기간까지 포함하면 군생활 가운데 42주의 양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장병들은 군생활 가운데 양육을 성실히 받았기 때문에 전역 후에도 민간 교회에 출석하여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동아리 활동으로 성경공부에 참석하는 장병들은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이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소그룹식 토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양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장소와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양육으

로 진행한다. 이 양육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병사들은 성경적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군종병이나 신우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3)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

미국의 대형 교회인 월로우크릭 교회가 성장하게 된 동기는 소그룹의 사역에 있다. 빌 하이벨스 목사와 그 관계자들은 “교회의 비전을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같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구장과 소그룹 담당 교역자, 대교구장, 부교역자들과 자원봉사 코치들, 그리고 섬김을 다하는 소그룹 리더들과 같은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¹⁵고 말한다.

그러나 군인 교회의 경우 민간 교회와는 달리, 주 중에 자유롭게 모여서 삶을 나눌 수 없고 주말에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과 주일 예배로는 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간에는 힘든 훈련과 경계 근무가 주어지고, 저녁 식사 이후에나 자유 시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통제와 규율로 인하여 교회로 모여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초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의 소그룹 양육이 필요하다.

생활관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중심 시설이다. 이 공간에서 병사들은 휴식과 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저녁 시간에 생활관의 구성 병사들은 당직 사관의 통제하에 이병에서 병장까지 집단 생활 방식으로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집단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초신자들의 경우

¹⁵ 빌 도나휴, 러스 로빈스 공저, 오태균 역,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서울: 국제 제자훈련원, 1999), 7-8.

선임병들의 종교적 영향을 받거나 많은 고민과 환경적 스트레스로 신앙 생활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중에 각 포대의 생활관에서 함께 모여 소그룹 양육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군생활 가운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소그룹을 통한 양육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 서로를 세워가고, 신자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이루어진다. 소그룹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이나 소수의 구체적인 인격과 삶, 그리고 가치관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사역자가 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¹⁶⁾인 양육 프로그램이다.

소그룹 활동은 각 포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장소를 결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소그룹 양육 리더로 세워진 각 포대 군중병과 선발된 신우 회원들을 중심으로 양육 훈련을 실시한다. 시간에 있어서는 석식 이후 자유시간이 2시간 정도 주어지지만, 생활관에서의 정해진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주 중 1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진행한다. 양육 교제는 주일에 주보를 활용하여 소그룹에서 나눌 내용을 배부하고, 개인 묵상을 통해 본문을 생각해 본 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함께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는 그룹 경건 시간 나눔(Group Quiet Time Sharing)을 진행하도록 한다. 초신자들의 경우 무거운 주제의 교리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를 소그룹에서 나눌 경우, 신앙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모임이 활성화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리더인 군중병 역시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삶을 나누고 말씀을 군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Q.T.는 성경공부가 단순한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초석이 될 수 있게 한다.

3) 양육 프로그램 진행에 의한 결과

2825부대 산돌교회는 출석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부터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육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나타난 높은 출석률에서 장병들의 신앙에 따른 정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6>은 부대에서 진중 세례를 통해 신자가 된 장병들이 양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과 후에 보인 교회 출석률에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산돌교회 진중 세례자의 교회 출석 현황

연도	세례 인원	출석 인원	출석률(%)
2007년	8	3	37.5
2008년	25	12	48
2009년	44	21	47
2010년	47	32	68
2011년	57	41	72

<표6>을 보면 양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는 세례를 받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정착하는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환경에 의해 세례를 받았지만, 이후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진급할수록 종교 활동 시간이 불필요하게 느껴져서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될 확률이 컸다. 반면에,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시기부터는 세례자들의 예배 참석에 대한 인

¹⁶⁾ 장열환, <군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 사관 생도 제자 훈련 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188.

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양육을 통하여 세례자들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군종병에 의해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과 소그룹 활동에 의한 양육 프로그램의 시행은 대대급 교회의 출석과 신자 전수 조사에서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병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줌으로, 타 종교로의 이탈이나 자신이 무종교라고 주장하는 장병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다음의 <표7>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825부대에서 전수 조사에 의해 파악된 종교 현황이다.

<표7> 2825부대 신자 현황 조사

구분	합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2009년	381	92(24.14%)	24(6.29%)	31(8.13%)	234(61.42%)
2010년	378	155(41%)	37(9.78%)	45(11.9%)	141(37.3%)
2011년	342	169(49.4%)	34(9.9%)	34(9.9%)	105(30.7%)

* 2011년도는 휴가 또는 파견에 의해 조사하지 못한 40명을 총원에서 제외하였음

<표7>을 보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았던 2009년도의 신자 현황 조사에서 기독교는 24.14%, 천주교는 6.29%, 불교는 8.13%였다. 반면, 자신이 ‘종교가 없다’고 선택한 장병의 수는 전체에서 234명인 61.4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는 그 결과가 2009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기독교 신자는 2009년에 비해 16.86%가 증가하였고, 무교도 약 24.12%가 감소되었다. 이때 천주교와 불교도 각각 3.49%와 3.77%가 증가하였으나 기독교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1년의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 천주교나 불교는 1.2%증가하거나 2%가 감소하였으나, 기독교는 8.4%가 증가하여 대대 병력의 약 49.4%가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무교 역시 2010년에 비해 6.6%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수 조사 결과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로, 신교대나 훈련소에서 세례받고 부대에 배치받은 장병들이 교회에서 실시한 신자 양육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동아리 활동을 통한 성경공부와 주 중에 각 포대에서 군종병이나 신우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육받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자신이 기독교 신자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라 본다.

4. 결론

1) 결론

선교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청년들을 배출하는 군대의 중요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군대에서는 매년 약 1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 세례자들은 이후 체계적인 양육이 없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역 후에는 교회를 떠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군대에서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현재 군인 교회에서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양육 프로그램을 3년 동안 2825부대 산돌교회에서 적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1) 군중병의 교사화이다

콜만은 “기독교 교육은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의식 전달 과정이며, 사람들을 변화된 삶의 헌신으로 인도하려는 목적에 전념하는 것”이라 했다. 기독교 교육에서의 교사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기독교 교육 교사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증인으로 교사의 영향이 교육적인 과정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신적인 소명을 받은 증거자이기에 생활과 말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술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교사는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며 경험한 바를 삶 속에서 증거하며 말하는 사람¹⁷이다.

군중병은 군인 교회의 초신 장병들에게 생활관에서 신앙과 관련하여 행동과 말로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들을 양육의 교사로 세웠을 때 초신 장병들은 교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초신 장병들에게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새신자 양육이다

군입대 후 훈련소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은 초신 장병들은 세례에 따른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대에 배치받는다. 또한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자대에 왔으나, 예배에 참석하던 중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을 위하여 대대급 교회에서는 반드시 새신자들을 위한 양

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들이 처음 군인 교회에 출석하면 4주 동안 각 포대 군중병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부대 생활에 대한 조언과 신앙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타 종교로 이탈하거나 신교대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확률은 사라지게 된다.

(3)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제자 양육이다

동아리 활동에서의 제자 양육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초신자와 기존 신자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이다. 이러한 영적 성숙은 성경에 관한 지식, 올바른 이해, 그리고 삶에의 적용을 포함¹⁸한다. 군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곧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에 의해서 제자 양육을 받은 장병은 영적인 성숙에 이르게 되고 한국 교회의 일꾼이 된다.

현재 군대도 사회와 같이 주 5일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은 휴무 계획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토요일 오전에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군중 및 신우들을 대상으로 제자 양육을 하게 됨으로 부족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생활관에서의 소그룹 활동이다

피터 와그너는 《교회 성장 원리》에서, “서로 친교하기 쉬운 지역에서

¹⁸ 한춘기, 《교회 교육, 그 이론과 실제》(서울:총신대학교출판부), 217.

¹⁹ 최윤성, 〈소그룹 사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총신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57-58.

¹⁷ 김희자, 《교사론》(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5.

교회 성장이 가장 잘된다”고 말하며, 소그룹에 대해서 “사랑과 단결을 키워 나가고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준다”고 말한다. 즉 소그룹 내의 중심점이 신앙일 때 그 구성원들은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의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⁹

생활관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중심 시설이다. 이 공간에서 병사들은 휴식과 교육 등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양육이 주말에 집중됨으로 인하여, 평일에는 영적 전투 가운데 지치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다. 특히 초신 장병들의 경우 믿지 않거나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선임병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을 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는 군종병들과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끌어주어, 양육이 성경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언

대대급 군인 교회는 군 선교에 있어서 실제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과 체계적인 양육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을 군생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지 못하고 전역하여 민간 교회로 보내고 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중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병과 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의 체계적인 양육을 통하여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대대급에 맞는 다양한 양육 교재와 양육 체계 개발에 대한 연구이다

민간 교회에서는 다양한 제자 훈련 과정을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각 과정마다 양육 교재를 보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 체계를 군인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으나, 그 상황에 맞는 양육 교재와 제자 훈련 과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몇 종류의 교재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이에 군 선교 기관이나 군목단에서는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 18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양육 체계와 교재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각 부대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군종병과 신우들을 위한 교사 교육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대대급 군인 교회에서는 민간 교회와 달리 교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군종병이나 신우들을 교사로 세워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종병과 신우들을 교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대대에서의 군종병들은 이중 보직으로 주중에는 주특기 훈련과 근무로 인하여 교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렵다.

간혹 사단과 같은 상급 부대에 군종목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나, 전 군종병이 아닌 대대별 1명씩을 소집하여 교육하는 것에 국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실제로 교육은 대대급 교회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1년에 2번 정도, 전반기와 후반기에 1번씩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받거나 주말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대급 교회에서는 군종병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미비하기 때

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대급 교회에 맞는 군종병과 교사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의 연구가 필요하다.

(3) 무종교를 선택하는 장병들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전군 전수 조사에서도 보면, 2009년 49.77%, 2010년 43.33%, 2011년에는 51.7%로 매년 50%정도가 본인의 종교를 무교라고 표현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기독교 신앙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군인 교회와 민간 교회의 연합된 양육 체계 연구이다

군인 교회에서의 양육은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이루어지며, 그 이후는 민간 교회에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군인 교회와 민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체계가 상이하여 전역하는 장병들이 민간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민간 교회에서는 군인 교회에서의 세례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뢰성이 낮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양육 체계는 1, 2년으로 끝나는 단회성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인 교회에서 양육받은 장병이 전역 후에 민간 교회 청년부에서 양육을 받을 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교회와 민간 교회가 연합하여 양육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위의 연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물들은 대대급 군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된다. 또한 군인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전역 후 민간 교회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전군 복음화, 전군 신자화를 통하여 군인 교회에서 배출되는 청년들은 한국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